

첫째로, 가정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가정에서 사람을 찾으십니다. 요셉도 가정생활을 잘 했고, 아브라함도 가정에서 귀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살피시고, 가정생활을 잘 감당한 사람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십니다. 가정에서의 삶이 쉬운 일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무거운 짐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 귀한 믿음의 일꾼으로 사용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삶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요셉에게는 큰 어려움이 많이 찾아왔지만, 그는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훈련의 과정임을 믿으며 신실하게 그에게 주어진 길을 걸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과정, 곧 훈련을 거쳐야 하며 그러한 훈련을 통해 더욱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셋째로, 믿음으로 자기 관리를 해야 합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재정 관리, 입술 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정을 잘 관리하여 많은 이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남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난하고, 끌어내리는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 사랑의 말, 격려의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정과 입술을 관리할 때, 내 삶이 복될 뿐 아니라 우리 가정이 은혜롭고, 내 주변까지 아름답게 바뀌어갈 줄 믿습니다.

가정생활 가운데, 또 인생의 모든 순간 속에서 믿음을 내려놓으라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넘어지고, 실수하게 하는 여러 상황들을 만납니다. 그 때, 그곳에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을 놀라운 믿음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 도 인 도 자
찬 송 292, 310, 384, 559장(중 택1) 다 같 이
주 기 도 문 다 같 이

* 예배 후 조상들이 남긴 믿음을 서로 이야기하며 그분들의 유덕을 기릴 수도 있습니다. 새해 계획을 세우며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나누면서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가집시다.

2 0 2 0 설 날 가정예배

선하심으로 인도하소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롬8:28)



 명성교회

예 배 순 서

* 가능하면 가장이나 신앙의 연장자가 예배를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목 도 막 12:29-31(말씀을 인도자가 낭독) 다 같 이

찬 송 287, 301, 550장 (중 택1) 다 같 이

성 시 교 독 다 같 이

인도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다같이: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인도자: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다같이: 네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인도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다같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다같이: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 아 멘 -

기 도 가 족 중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동안도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돌보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명절인 설날에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부르심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2020년에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올 한해를 지나가며,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만날 때에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믿으며 기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올 한해는 특별히 믿음의 말을 하는 훈련을 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감사로 가득한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온 가족이 마음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 경 봉 독 창 39:1-6 인 도 자

1.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2.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4.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5.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므로 여호와와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6.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말 씀 언제 어디서나 믿음으로 인 도 자

새로운 한 해가 복되고 귀한 믿음의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할 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본으로 삼을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요셉의 삶이라는 작품은 요셉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 하나님의 작품 가운데 요셉은 순종함으로 믿음의 본을 보였습니다. 요셉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요셉이 누렸던 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으로 일생을 섬겼던 요셉의 삶을 살피볼 때, 우리가 따라가야 할 세 가지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